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영어동사 ‘open’과 한국어동사 ‘열다’의 목적어 명사 연어 비교

2012 년 8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하 윤 정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영어동사 ‘open’과 한국어동사 ‘열다’의 목적어 명사 연어 비교

지도교수 김 은 일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8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하 윤 정

하윤정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2월 25일

주 심　영어학박사　배 재 덕　(인)

위 원　영어학박사　한 지 원　(인)

위 원　언어학박사　김 은 일　(인)

목 차

Abstract iii

Ⅰ. 서 론 1

Ⅱ. 이론적 배경 4

2.1 연어 4

2.2 은유와 환유 5

Ⅲ. 동사 'open'과 '열다'의 목적어 언어 비교 8

3.1 구체명사연어 10

3.1.1 공유하는 구체명사연어 11

3.1.2 'open'만의 구체명사연어 16

3.1.3 '열다'만의 구체명사연어 21

3.2 추상명사연어 22

3.2.1 공유하는 추상명사연어 23

3.2.2 ‘open’만의 추상명사연어 25

3.2.3 ‘열다’만의 추상명사연어 27

3.3 시간명사연어 28

Ⅳ. 결 론 31

참고 문헌 34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Objective Noun Collocations of English Verb 'open'

and Korean Verb 'Yeolda'

Ha Yoon Jung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semantic boundary between the English verb 'open' and the Korean verb 'Yeolda' by analyzing and comparing their objective noun collocations from BYU/COCA and Cocoma Sejong Malmungchi. The result obtained from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 First, doorlike noun collocations such as 'door', 'possibility', and 'refrigerator' which have similar characteristics with door collocate with both the English verb 'open' and the Korea verb 'Yeolda'. Second, most noun collocations of 'open' and 'Yeolda' such as 'bottle', and 'business' collocate only with the English verb 'open',

meanwhile some noun collocations which fail to meet similarity of door characteristics don't collocate with the Korean verb 'Yeolda' and other Korea verbs replace it. Finally, Its own cultural bases and the ways of thinking are reflected in each verb meaning boundary and linkage between verb and collocation. So each language's verb is collocated with different collocations. This study proves that the English verb 'open' has a wider semantic boundary so it collocates with most noun collocations unlike the Korean verb 'Yeolda' which is collocated with limited noun collocation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Ⅰ. 서론

영어 동사 ‘open’은 영어를 조금이라도 학습한 학습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정도로 우리가 많이 접하고 사용하는 어휘이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 ‘open’의 대표적인 의미는 ‘열다’이다(cf. 에센스 영한사전 11판). 하지만 다양한 문맥들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open’을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열다’로 번역을 한다면 ‘open’이 동사로 사용된 문장의 번역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 아래의 예문을 보자.[1)]

(1) a. I opened doors and entered rooms and looked in the closets searching for something.
b. 나는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무언가를 찾기 위하여 옷장 안을 보았다.[2)]

(2) a. He opened his arms, reaching to embrace her.
b. *그는 그의 **팔**을 **열고**, 그녀를 안기위해 다가갔다.

위의 예문(1a)의 ‘open’은 ‘열다’로 (1b)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다. 하지만 예문 (2b)에서는 ‘open’을 한국어 ‘열다’로 번역하니 비문이 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장에서는 ‘팔을 열다’가 아닌 ‘팔을 벌리다’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반대로 한국어 동사 ‘열다’를 영어로 번역할 때 open을 쓰면 자연스러운 번역이 될 수 있을까? 아래의 예문들을 보자.

1) 본 논문의 모든 예문은 영어 코퍼스 COCA(http://corpus.byu.edu/coca/)와 한국어 말뭉치 꼬꼬마 세종 말뭉치(http://kkma.snu.ac.kr/)에서 발취한 것임.

2) 예문(1~4) 의 영한, 한영 번역은 필자가 번역을 한 것임.

(3) a. ...서울서 돌 **전시회**를 **열기** 위해서였습니다.

b. ...to **open** the stone **exhibition** in Seoul.

(4) a. **하루**를 **여는** 첫 방송인 6시 뉴스는 이렇게 시작된다.

b. The 6 O'clock News, the first broadcast that **opens** a **day**, starts like this.

위의 예문(3)a는 '열다'는 영어도 'open'으로 자연스럽게 번역이 된 것을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예문(3)a의 '열다'의 예문을 'open'을 사용하여 (4)b로 번역을 하면 어색한 문장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영어에서는 한국어에서와 같이 '하루를 열다'라는 표현이 없고 동사 open은 목적어 명사 day와 공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동일한 의미로 보이는 두 어휘는 각각 다른 의미영역을 가지고 있고 문맥에 따라, 특히 목적어에 따라 번역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단순히 영어의 동사 'open'과 한국어 동사 '열다'를 동일한 의미로 대응되어지는 어휘라고 생각하면 영한, 한영 번역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한 어휘의 의미를 잘 몰라서라기보다 영어와 한국어의 유사 어휘 간의 의미 범위가 다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영어사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학습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라 보인다. 그리고 그 이유는 또한 개별단어들에 자주 결합관계인 연어(collocation)[3]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껏 많은 연어에 관한 연구들이 있어왔지만[4] 영어 또는 한국어 각각의 언어 내의 어휘 간의 연어 분석이 있었을

3) 연어란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공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연어에 대한 설명은 2단락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4) 영어 동사 비교문석 (심지영 2008, 2009, 2010, 2011), 영어 유의어 연어에 대한 학생들의 연어교육 (김영생 2004, 전영창 외 2006, 박미실 2009) 등이 있지만 모두 영어 어휘 사이의 연어 비교와 분석에 그치고 있다.

뿐 유사한 의미를 가진 영어와 한국어의 어휘의 연어를 비교하여 그 의미차이를 조사한 연구는 없었다. 유사한 의미의 영어와 한국어 어휘의 연어를 비교분석 해보고 그 어휘들의 실제 사용상의 의미의 차이를 이해한다면 영어를 한국어로 한국어를 영어로 자연스럽게 번역하고 각 언어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같은 의미를 가지는 동사들이라고 생각되어졌던 영어 동사 'open'과 그에 대응하는 한국어 동사 '열다'의 의미 영역을 구별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표현들의 말뭉치인 코퍼스에서 'open'과 '열다' 목적어 명사언어를 빈도를 기준으로 추출해 어떠한 공통명사와 연어 관계를 이루는지, 또 어떤 명사연어들이 각각의 동사와 결합했을 때 매끄럽지 못한 결합이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두 동사의 실제 사용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연어비교를 통해 알아보고 의미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이전 연구에 대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영어동사 'open'과 한국어 동사 '열다'의 연어를 기반으로 한 사용상 연어 비교를 하겠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이전 연구

이 장에서는 이 연구의 기본 개념인 연어(collocation)에 대해 살펴본 후, 대표적인 비유법인 은유와 환유 각각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2.1 연어

어휘는 혼자 사용되지 않고 다른 어휘들과 함께 사용되며 이러한 어휘들은 특정한 어휘들과의 결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어휘들의 결합이 연어이다. 이러한 연어의 개념을 처음 생각해낸 Firth(1957)는 이러한 연어를 '서로 결합하는 단어들의 조합'이라고 정의 내렸다. 그리고 Carter(1987)는 '언어 속에서 반복적으로 함께 나타나는 단어들의 모임'이라고 연어를 정의하였다. 또한 Lewis(1993)는 그 언어를 쓰는 화자의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져 있어 하나의 말뭉치처럼 인식되어지는데 무작위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주 쓰이는 빈도가 높은 단어들을 연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연어는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되어왔는데 Carter(1987)는 결합의 제한성을 기준으로 가장 제한적인 연어(most restricted collocations), 준제한적 연어(semi-structured collocations), 비제한적 연어 (unrestricted collocations)의 세 가지로 연어를 구분하였다. Hill(2000) 역시 결합강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어를 고유 언어(unique collocations), 강한 연어(strong collocations), 중간 강도의 연어(medium-strength collocations), 약한 연어(weak collocations)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Benson, Benson & Ilson (1997a, b)은 어휘나 문법적인 관점에서 연어를 분류하여 어휘적 연어(lexical collocations)와 문법적 연어 (grammatical collocations)로 연어를

분류하였는데 여기에서 문법적 연어는 명사, 동사, 형용사와 같은 내용어(content word)와 전치사나 to부정사와 같은 기능어(function word)의 결합이다. 그리고 어휘적 연어는 명사, 동사, 형용사 그리고 부사와 같은 내용어의 결합으로 '동사+명사 (withdraw an offer)', '형용사+명사 (crushing defeat)', '명사+동사 (blizzards rage)', '명사+명사 (a pride of lions)', '부사+형용사 (deeply absorbed)', '동사+부사 (appreciated sincerely)'의 6가지로 나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Benson, Benson & Ilson (1997a, b)의 연어 분류 중 어휘적 연어, 그 중에서도 동사의 의미와 관련된 연어인 '동사+명사'의 연어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연어의 중요성과 국내 연어 연구에 대해 잠시 살펴보자. 이러한 연어의 중요성은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고 (Pawley & Syder 1983; Carter 1987; Lewis 1993, 1997, 2000), 국내에서 또한 연어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어 학습에 관련된 연어 연구(김낙복 2005, 2007; 현태덕 2007; 김미순 2008)가 있었다. 그리고 한국 영어학습자들의 연어 능력에 관한 연구(전영창 외 2006, 2007; 심지영 2008)가 있었고 연어를 기반으로 한 영어의 두 어휘를 비교한 연구(조의연 2005; 심지영 2008, 2009, 2010, 2011) 또한 있었지만 영어와 한국어의 유사한 의미를 가진 어휘들의 의미영역 비교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지금까지 연어의 정의와 분류, 그리고 관련된 이전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은유와 환유에 대해 살펴보겠다.

2.2 은유와 환유

은유(metaphor)는 대표적인 비유법 중의 하나로 기존의 언어학에서는

언어상의 문제로 여겨지고 있었다. 하지만 Lakoff(1980, 1987)의 개념 은유설(conceptual metaphor)에 따르면 우리의 개념 자체가 은유적이어서 언어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사고방식 자체를 반영하는 은유가 일상 언어의 많은 부분에 널리 퍼져있다고 한다. 또한 Lakoff(1987, 1993)는 은유의 본질을 한 개념 영역에 다시 개념 영역을 사상하여 그 개념 영역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우리의 사고고정과 관련된 문제라고 정의 내렸다. 즉 어떤 하나의 대상이나 개념을 다른 대상이나 개념의 관점에 적용하여 이해하는 비유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서로 다른 대상이나 개념 사이에서 유사성이나 차별성을 찾아내는 비유법이다. 다음 Loakoff(1993)의 예를 통해 은유의 특징을 살펴보자.

(5) a. Look *how far we've come*.
b. It's been *a long, bumpy road*.
c. We're at *a cross road*.

위의 예들은 “사랑은 여행 (LOVE IS A JOURNEY)”이라는 은유에서 파생된 언어표현이다. 사랑과 여행은 서로 다른 개념 영역이지만 두 개의 다른 개념영역의 공통점이 은유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사랑하는 두 사람은 여행을 하는 사람으로 대응되고, 사랑의 관계는 교통수단이 된다. 그리고 연인의 공동 목표는 여행의 공동 목적지가 되고 관계상의 어려움들은 여행의 장애물에 대응된다(Lakoff 1993). 이와 같이 은유는 유사성을 근거로 한 표현이라면 환유(metonymy)는 인접성을 근거로 한 표현이다.

Radden(2005)은 ‘the ubiquity of metonymy’라고 하며 환유 또한 은유처럼 언어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우리의 일상 언어 속에 더 널리 퍼져있음을 표현하였다. 환유는 어떤 사물이나 개념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쉽게 지각할 수 있는 한 부분을 표현해서 그 전체나 그 다른 일면 또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다. Croft(1993)의 예를 통해 ‘전

체에 대한 부분' 이라는 환유의 특징을 살펴보자.

(6) a. We need a couple if strong *bodies* for our team.
b. There are a lot of good *heads* in the university.
c. We need some new *faces* around here.

위의 예문(6)에서 bodies, heads, faces는 사람을 지시하는 것이다. 즉 부분이 사람 전체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Fill up the car, please"와 같이 전체가 부분을 지칭하는 경우 또한 환유의 표현이다.

이와 같이 은유와 환유는 문학 작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일상 언어에도 널리 퍼져있다. 그리고 이러한 은유와 환유의 비유법은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인식까지도 나타내는데 더 나아가서 각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언어를 어떻게 개념화하는가를 알 수 있는 좋은 증거가 된다(이수련 2006). 이러한 은유와 환유가 각기 다른 두 언어들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비교함으로써 그 언어권의 사람들이 가진 언어 전반에 걸친 사고방식과 언어의 의미 확장 방식도 알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어와 한국어의 동사 'open'과 '열다'가 목적어 명사 연어와 결합할 때 이러한 은유와 환유의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비교해 봄으로써 두 동사의 의미영역을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Ⅲ. 동사 ‘open’과 ‘열다’의 목적어 명사연어 비교

이 장에서는 영어 동사 ‘open’과 한국어 동사 ‘열다’의 목적어 연어 명사들 중 두 동사가 공유하는 명사 연어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상이한 연어 명사[5]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두 동사의 의미 영역을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코퍼스에서 추출된 명사 연어를 구체명사(concrete noun), 추상명사(abstract noun) 그리고 시간명사(temporal noun)로 구분해 분석해보겠다.[6]

BYU/COCA 프로그램에서 빈도순을 기준으로 추출된 ‘open’의 명사 연어 100개를 위의 세 가지 명사유형으로 구분한 빈도수는 아래 표와 같다.

< 표 1 > open의 명사 연어 유형별 빈도 및 포함 어휘

명사 분류	빈도	어휘 (결합 횟수)
구체명사	67 개 (78%)	DOOR (10381), EYES (4263), MOUTH (2279), FIRE (1144), WINDOW (767), BOOK (350), BOX (381), GATE (317), CAR (307) ARMS (291) 외 57개
추상명사	19 개 (22%)	WAY (485), POSSIBILITY (104) BUSINESS (177) 외 16개
시간명사	14 개 (0%)	NIGHT (485), MONTH (173) 외 12개

5) Lewis(2000)과 Hill(2000)는 연어 명사 유형분류 중 동사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연어는 명사연어라 하였다. 즉 명사연어가 동사의 의미에 가장 연관성이 있어 동사의 의미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본 연구 주제인 ‘open'과 ’열다‘의 의미적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명사 연어를 구체적인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

6) 구체명사, 추상명사 그리고 시간명사라는 용어 및 분류는 Givon(1993)의 구체성(concreteness)을 토대로 한 명사 분류를 따른 것이다. 구체명사는 공간과 시간에 존재하는 개체를 부호화한다. 시간적 명사는 시간 속에서만 존재하는 개체를 부호화한다. 추상명사는 그 존재를 시간이나 공간 중 어느 관점에서도 정의할 수 없는 실체를 부호화한다. (Givon 1993)

대부분의 경우에 시간부사절[7]로 결합된 시간명사 14개를 제외한 'open'의 목적어 연어 86개가 발견되었고 이러한 명사 중 구체명사는 67개(78%), 추상명사는 19개(22%)가 발견되었다.

꼬꼬마 세종 말뭉치에서도 빈도순 추출된 '열다'의 명사연어 100개는 명사 유형별로 분류하면 아래 표와 같다.

< 표 2 > '열다'의 명사 연어 유형별 빈도 및 포함 어휘

명사 분류	빈도	어휘 (결합 횟수)
구체명사	48 개 (48%)	문 (1,187), 입 (876), 방문 (196), 길 (118), 창문 (116), 뚜껑 (104), 대문 (54), 서랍 (44), 상자 (25) 외 39개
추상명사	46 개 (46%)	회의 (311), 말문 (89), 대회 (86), 총회 (78), 마음 (76), 회담 (67), 위원회(63), 회견 (49), 가능성 (29) 몸 (8) 외 36개
시간명사	6 개 (6%)	내일 (12), 새벽 (8), 아침 (9) 외 3개

한국어동사 '열다'의 목적어 명사 연어를 명사 유형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다. 구체명사는 48개(48%) 추상명사는 46개(46%) 시간적 명사는 6개(6%)가 나왔다. 두 동사 모두에 나타난 구체명사연어와 추상명사연어를 비교해 보았을 때 'open'이 구체명사와의 결합(78%)에 조금 더 선호되는 것처럼 보이고 '열다'의 추상명사와의 결합(46%)의 대부분이 회의나 행사와 같은 비슷한 이벤트 명사연어들이었기 때문에 구체명사와 추상명사의 비율 자체로는 두 동사의 의미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기 어려우니 세부적인 분류를 통해 의미를 구분해보고자 한다. 먼저 3.1에서는 구체명사 연어를, 3.2에

7) 아래 예문과 같이 전부 시간부사절로만 결합되었다.
The Milford, Mass., branch opened last year and is one of two franchises in the Boston area.

서는 추상명사 연어를 그리고 3.3 에서는 시간적 명사를 살펴보겠다.

3.1 구체명사연어

구체명사는 공간과 시간에 존재하는 구체를 부호화하는 명사(Givón 1993)[8]인데, 즉 구체적인 모습을 갖춘 사물을 의미한다. 구체명사연어는 'open'과 '열다'와 공통으로 결합하는 구체명사연어와 'open'과 혹은 '열다'와의 결합만이 가능한 명사연어로 나뉠 수 있다.

이러한 'open'과 '열다'의 구체명사 연어와의 결합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다.

< 표 3> 'open'과 '열다'의 구체명사연어 결합 비율

	'open'의 구체명사연어 (67개)	'열다'의 구체명사연어 (48개)
동시 결합 연어	49개 (73%)	47개 (98%)
단독 결합 연어	18개 (27%)	1개 (2%)

위와 같이 COCA에서 빈도순으로 검색된 'open'의 구체명사연어는 67개 중 '열다'와 공유하는 구체명사는 49개 'open'만의 구체명사연어는 18개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열다'의 구체명사연어 48개 중 1개[9]를 제외하고는 모두 'open'과의 결합이 가능하였다. 이 장에서는 명사연어 'open'과 '열다' 가 어떻게 실제 사용상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같은 연어를 공유하는 경우와 'open' 만의 구체명사 연어 '열다'와의 결합이 성립되지 않는 이유, 그리고 한국어의 어떤 다른 동사와 결합되는지 여러 경우를 통해 살펴보겠

8) Givón (1993) 은 구체 명사의 예로 rock, tree, horse, woman 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9) 한국어 동사 '열다' 만의 구체명사 연어 중 유일하게 '몸'이 '열다'만의 구체명사 연어였다.

다.

3.1.1 공유하는 구체 명사 연어

영어동사 ‘open’과 한국어동사 ‘열다’ 두 어휘의 가장 결합빈도수가 높은 명사 연어는 door(문)이다. 이기동(2002)은 open의 대표적인 과정을 ‘문’을 여는 과정으로 그 의미를 설명하였다. 문을 열면 문설주와 문설주 쪽의 문이 서로 떨어지면서 공간이 생기는데 이 공간이 통로가 되어 공간을 통해서 사람, 소리, 빛, 공기 등이 지날 수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이 공간이 생기는 과정이 ‘open’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open’과 ‘열다’의 대표적인 구체명사 연어인 ‘문’과의 결합을 아래의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7) a. I opened the door and found Mister George...
b.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책상에 엎드린 챙을 보았고...

위의 예문(7a)와 (7b)에서 볼 수 있듯이 구체명사연어 door(문)는 ‘open’과 ‘열다’와 공통으로 결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두 동사와 가장 높은 빈도로 결합하는 구체명사연어 ‘문’은 가장 전형적인 명사연어로 여겨진다. 여기서 전형적인 명사라 하는 것은 ‘open’ 혹은 ‘열다’의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벽과 같은 경계가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을 구분하고 있으며 개폐가 가능한 문이 있어 사람이나 사물의 출입이 가능하게 하는 시설인 것이다.

위의 예문처럼 사람이 드나드는 ‘방의 문’ 뿐만 아니라 문의 종류에 포함되는 명사들 또한 전형적인 구체명사 연어로 ‘open’과 ‘열다’와 공통으로 결합한다. 문의 종류에 포함되는 ‘open’의 명사 연어는 gate, screen door, bedroom door, floodgate, hatch, window 등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열다’의 명사 연어는 방문, 현관문, 포문, 수문, 창, 창문 등이 발견되었다. 이러

한 두 동사의 구체명사연어들은 모두 ‘open’과 ‘열다’와 공통으로 결합이 가능하였다.

그리고 개폐가 가능한 문이 있는 기계들도 전형적 명사 연어들에 포함된다.

(8) a. ...he opened the car door and got out, closing it softly.

b. ...사람들은 차문을 열고 나와 다른 일들을 하고 있었다.

(9) a. Frustrated, Harry opens the car and PULLS THE BRIEFCASE OUT.

b. ...준수의 차를 열어보다가 잠겨있자 다시 냅다 뛴다.

위의 예문(8)과 (9)의 car(자동차)는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문이 있고 차안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 예문(8)과 (9) 모두 ‘차의 문’을 여는 것(open)을 의미한다. 하지만 예문(8)과 같이 car door(차문)를 열다가 대부분이었지만 예문(9)와 같이 car(자동차)를 open(열다)의 표현 또한 두 동사 모두와 결합이 가능하였다. 이것은 부분으로써 전체를 표현하는 환유의 표현을 채택한 것으로 차문을 열지만 ‘차를 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open’과 ‘열다’ 모두 환유의 표현을 취하여 구체명사연어 car(차) 자체와 결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문’을 가지고 있고 음식물과 같은 사물이 주로 출입하는 기계명사 연어인 refrigerator(냉장고)와 oven(오븐) 또한 ‘open’과 ‘열다’와 동시에 빈번히 결합되고 있었다. 명사연어 refrigerator(냉장고)와의 결합에서 또한 환유의 표현이 나타났다. 냉장고의 문을 열어 안의 물건을 꺼내는 행동을 하는데도 ‘냉장고를 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듯이 문학작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주 쓰는 일상표현에 환유와 같은 비유법이 많이 쓰이고 있었지만 이러한 표현이 환유의 표현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우리는

느끼지 못할 정도로 널리 퍼져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랍과 같은 가구명사 또한 전형적인 명사연어이다. closet(옷장), cabinet(캐비닛)과 연어들은 냉장고와 마찬가지로 '문'과 유사한 요소들을 가진 전형적인 명사연어이다. 하지만 아래의 drawer(서랍)의 경우는 조금은 전형에서 벗어난 예로 보인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10) a. Laura **opened** the **drawer** under the bookcase...

b. ...동생의 서랍을 열어보니 자신만의 문집이 여러 권 있었다.

위의 예문(10)을 보면 서랍은 개폐하는 문이 없어 문보다는 덜 전형적이지만 서랍 자체가 문의 역할을 함으로써 서랍내부의 공간과 외부공간을 개폐하여 사물이 오갈 수 있도록 하는 점은 문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어 drawer(서랍) 또한 두 동사와 공통으로 결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box(상자) 또한 문은 없으나 상자의 뚜껑이 분리된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을 연결하고 사물이 오갈 수 있게 하여 'open'과 '열다'와 공통으로 결합한다. 뚜껑은 박스와 연결되어 박스의 한 부분인 경우도 있고 떨어져 나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뚜껑을 박스의 부분으로 포함시켜 하나의 물체로 본다. 그리고 lid(뚜껑) 그 자체도 'open'과 '열다'와의 결합도가 높은 연어이다. 뚜껑은 문과 같은 기능을 하는 조금은 확대된 의미의 전형적인 명사연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건축물명사들 또한 'open'과 '열다'가 같은 연어를 공유하는 경우이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11) a. He **opened** an **office** in Santa Clara...

b. 5층에는 전화번호부 광고대행사 이민석씨의 사무실이 **문**을 **열었**으며,...

c. 이 일을 하기위해 **사무실**도 **열었다**.

위의 예문(11)의 office(사무실)을 열다[10]는 단순히 사무실의 문을 열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한다는 말 대신 '사무실을 열다'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환유가 사용된 표현이다. 사무실은 사업을 하기위한 공간으로 사업의 한 부분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한 부분인 사무실이 사업 전체를 대표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1c)의 예문에서는 환유의 의미가 더욱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사무실의 부분 중 한 부분인 문이 사무실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사업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한국어에서만 나타났다. 영어에서 'open the office door'는 말 그대로 '사무실에 있는 문을 열다'를 의미할 뿐 사업을 시작한다는 의미는 나타내지 않는다. 이 외에도 restaurant(식당), store(가게) 그리고 shop(상점)과 같은 명사연어들도 유사한 의미를 가지며 두 동사와 동시에 결합하였다.

다음으로 전형적인 문의 요소나 공간을 가지지 않는 연어들과 결합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아래의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12) a. He opens the bag and takes out the trophy.

b. 영애는 가방을 열고 [...]돈과 금반지를 꺼냈다.[11]

위의 예문(12)는 bag(가방)이 연어로 온 경우인데 위의 예문처럼 가방은 트로피나 돈과 같은 물건이 오갈 수 있으며 그런 물건들을 보관할만한 공간 또한 가지고 있다. 물론 개폐가 가능한 문과 같은 기능을 하는 장치는 없거나 지퍼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입구가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전형의 요소들을 충족시키는 덜 전형적인 명사연어로 두 동사와 동시에 결합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wallet/purse(지갑), briefcase(서류가방) 그리고

10) 사무실을 '열다' 혹은 '차리다' 두 가지 표현이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꼬꼬마 세종 말뭉치의 프로그램에서 사물실의 연어를 분석해본 결과 열다가 1.94% 그리고 차리다 가 1.36% 로 '열다'와의 결합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 []는 필자가 편의상 추가한 것임.

envelope(봉투)과 같은 명사 연어들과 동시에 결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신체부위명사 중 유일하게 ‘open’과 ‘열다’가 같은 구체명사연어를 공유하는 경우는 mouth(입)이었다. ‘입을 열다’는 입을 여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입을 여는 행위는 ‘말’을 시작하는 행위이다. 어떤 것을 시작한다는 공통점을 비유한 ‘은유’가 적용된 표현이다. 또한 ‘문’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 아래의 예문(13)와 같이 자연스럽게 두 동사와 동시에 결합된다.

(13) a. Thom opened his mouth to protest, then closed it.

b. 오종은...영환이 들을 만하게 씹어뱉듯 입을 연다.

위의 구체명사연어들과는 다르게 ‘문’의 전형적인 특징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open’과 ‘열다’와 동시에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14) a. He whistled as he opened the lock on the entry chamber.

b.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니 아이는 자고 있었다.

위의 예문(14)에서는 구체명사연어 lock(자물쇠)는 ‘open’과 ‘열다’가 동시에 결합되었다. ‘자물쇠’는 전형적인 명사 연어 ‘문’과 아무런 공통점이 없지만 자연스럽게 ‘open’과 ‘열다’와 결합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환유의 의미의 확장으로 설명될 수 있다. 자물쇠는 보통 ‘문’이나 무언가를 보관하는 ‘상자’에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니 자물쇠는 단순히 자물쇠가 아니라 문의 한 부분으로 보았고 한 부분이 전체의 부분을 대표한 비유법인 환유의 표현이 사용된 것이다. 그래서 ‘open’과 ‘열다’와 자연스럽게 결합한 것이다.

그리고 명사연어 way(길) 또한 ‘open’ 그리고 ‘열다’ 두 동사와 동시에 결합하였다. ‘길’은 구체명사연어이지만 구체적인 의미와 추상적인 의미 모

두를 포함한다.

(15) a. ...to open the way to a peaceful and normal future for China.

b....인터넷 상영함으로써 해외배급의 길도 열겠다고 한다.

위의 예문(15)에서 way(길)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아닌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며 'open'과 '열다'와 동시에 결합함을 알 수 있다. '길'은 추상적인 의미로 어떠한 곳으로 가게 해주는 경로가 되는 것이다. 어떠한 새로운 공간 혹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연결되는 경로라는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은유의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두 동사와 결합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구체명사연어 district(구역)가 발견되었고 두 동사와 동시에 결합하였다. 하지만 이 명사연어는 구체적인 의미만을 표현하고 있었다.

위의 예들에서 살펴보았듯이 결합의 빈도수가 가장 높고 가장 전형적인 구체명사연어 '문'이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구체명사연어 '창문', '냉장고'와 같은 경우 'open'과 '열다'의 의미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동시에 결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때 결합한 명사들은 가장 전형적인 명사인 'door(문)'과 같이 벽과 같은 경계가 있어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고 개폐가 가능한 문이 있어 사람이나 물건이 오가는 기준들을 충족한 명사들이였다. 전형적인 구체명사연어가 아닌 경우에도 두 동사가 같은 연어를 공유하였는데 그것은 비유법이 사용된 경우였다. 명사연어 '자물쇠'와 한 부분이 전체를 대표해서 사용되는 비유법인 환유의 표현이 사용된 경우로 자연스럽게 'open'과 '열다'가 동시에 결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3.1.2와 3.1.3에서는 각각 'open' 만의 구체명사 연어와 '열다' 만의 구체명사를 살펴보겠다.

3.1.2 'open' 만의 구체 명사 연어

이 장에서는 'open'만의 구체명사연어를 살펴볼 것인데 그중 어떠한 요소들이 '열다'와의 결합을 가능하지 않게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다음의 예문들을 보자.

(16) a. Suzie **opens** a **letter** and a picture of a baby falls out.

b. 눈도 하나 깜짝 안하고 태옥이 **편지**를 **뜯**었다.

그렇지만 위의 예문을 보면 영어동사 'open' 만의 연어인 편지는 한국어 동사 '열다'와는 결합하지 않고 다른 동사인 '뜯다'[12]와 결합한다. 이 표현은 환유를 사용하고 있다. 편지를 열거나 혹은 뜯는 것은 편지가 아니라 편지가 들어있던 봉투를 뜯고 여는 것이다. 하지만 편지의 한 부분인 '봉투를 뜯다'라는 일반적으로 자리 잡은 환유의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 예문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어 동사 '열다'는 영어동사 'open'보다 좀 더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영어동사 'open'이 좀 더 넓은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편지는 일반적으로 밀봉되어 있고 그것을 한 번 뜯으면 다시 복구할 수 없다. 즉 여러 요소들이 개폐의 요소에 충족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열다' 대신 붙거나 닫힌 것을 떼거나 찢을 때 쓰는 동사 '뜯다'와 결합한 것이다.

하지만 같은 구체명사연어 '편지'와의 결합이라도 '뜯다'보다 '열다'와의 결합이 더 자연스러운 예외의 경우도 있다.

---

12)동아 새 국어사전에 의하면 '뜯다'의 의미는 '붙거나 닫힌 것을 떼거나 찢거나 봉투 따위를 찢거나 헐어서 열다'라고 정의한다.

(17) 클릭과 동시에 강아지의 입에 물려있던 **편지**가 **열**렸다.

위의 예문에서 편지는 종이편지가 아닌 e-mail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터넷 상에서 화면은 window(창)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컴퓨터의 화면과 창문의 창과의 유사점을 비유한 은유적 표현이다. 그래서 클릭을 함으로써 편지 즉 새로운 창이 열렸으므로 동사 '뜯다'가 아닌 '열다'와 결합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어의 다른 동사와 결합하는 연어는 편지뿐 아니었다. 다음 예문을 보자.

(18) a. He **opened** a bottle of homemade rum ...
b. 그녀는 ... 버겐디 한 병을 **땄다**.

위의 예문 (18a)에서는 bottle(병)은 'open'과 자연스럽게 연어를 이루었다. 하지만 (18b)에서는 '열다' 대신 동사 '따다'[13]가 연어 '병'과 결합하였다. '따다'는 단순히 여는 것이 아니라 내부공간을 폐쇄하여 밀봉된 것을 뜯는다는 의미가 있는데 다시 밀봉하는 것이 힘들거나 일반적으로 열지 않는 것을 여는 경우 쓰이는 동사이다. 이와 유사한 구체명사연어로는 beer(맥주), 그리고 can(캔) 등이 발견되었다.

또 다른 경우는 book(책)과 결합하는 경우였다.

(19) a. Sometimes I **open** my **book** and read from it at random.
b. 국어**책**을 **펴고** 오늘 배운 곳을 공책에다 베껴 쓰라고 했다.

위의 예문(19a)을 보면 명사연어 book(책)은 'open'과 자연스럽게 결합한데 반해 한국어에서는 동사 '펴다'[14]의 연어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영어에서는

13) 동아 새국어 사전에 의하면 '따다'는 '붙었거나 막힌 것을 뜯거나 트다'라고 정의된다.
14) 동아 새국어 사전에 의하면 '펴다'는 '오므리거나 오므라든 것을 벌리다'라고 정의된다.

book(책)이 ‘open’의 연어로 올 수 있는 것은 은유의 표현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책의 안쪽 부분은 내부공간이 되고 책을 읽거나 기록함으로써 시선이나 기록한 내용이 들어가고 책의 내용이 읽혀짐으로써 밖으로 나오는 등 책을 펴는 것과 문을 여는 것은 많은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동사 ‘펴다’와 결합하는데 단순히 접혀있는 책을 벌리는 것으로 표현한다. 유사하게 이외에도 ‘folder’나 ‘newspaper'와 같은 구체명사연어가 발견되었다.

위의 3.1.1절에서 설명했던 mouth(입)을 제외한 신체부위명사연어는 ‘open’에만 결합되는 명사연어였는데 아래예문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20) a. ...he did **open** his **eyes** and look at your mom.
b. 여자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위의 예문(20a)에서 eye(눈)이 ‘open’과 결합한 것과는 다르게 (20b)는 ‘열다’가 아닌 ‘뜨다’와 결합하였다. 영어에서는 ‘눈꺼풀’이 ‘문’과 유사한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환유의 표현으로 ‘open’과 결합하였지만, 한국어에서는 ‘눈꺼풀’은 문처럼 열리는 것이 아니라 벌어지는 것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환유의 표현으로 ‘눈을 뜨다’와 같은 표현이 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chest(가슴), hand(손), 그리고 arm(팔)과 같은 신체부위에 관련된 명사 연어들이 있다. ‘가슴’과 ‘손’은 한국어 동사 ‘펴다’[15]와 결합한다. ‘가슴’과 ‘손’은 내부 공간이 열린다는 개념에 부합되지 않고 단순히 움츠려지거나 접혀있던 것이 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열다’와의 결합은 어색하다. 그리고 ‘팔’ 또한 ‘열다’가 아닌 ‘벌리다’[16]와 결합한다. 팔이 벌어지는 것은 몸을 축으로 팔이 몸에서 떨어져 멀게 하는 것이고 ‘문’의 전형적인 요소

15) 동아 새 국어사전에 의하면 ‘펴다’는 ‘오므리거나 오므라든 것을 벌리다.’로 정의된다.

16) 동아 새 국어사전에 의하면 ‘벌리다’는 ‘둘 사이를 떼어서 넓히다 혹은 오므라진 것을 펴서 열다.’로 정의된다.

중 어느 것에도 부합되지 않고 어떠한 비유표현도 사용되지 않아 '벌리다'와 결합한다.

그리고 위의 3.1.1 절에서 설명했던 건축물 명사 연어 '사무실', '음식점' 등과는 다르게 예외적으로 school(학교)은 'open' 만의 명사 연어였다.

(21) a. God, she said, had told her to **open** a **school**.
b. 그는 **학교**를 **세워** 교육에 힘쓰는 한편,...

구체명사 연어 '학교'는 한국어 동사 '세우다'[17]와 결합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건축물 명사 '사무실', '가게' 등과 다르게 동사 '세우다'와 결합했는데 이는 '열다'와 결합하는 경우는 '학교'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 경우이고 세우는 것은 시설로 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학교'는 경영해야할 사업이 아닌 교육을 가르치는 시설로 보는 경향이 있어 '세우다'와 더 잘 결합하는 것으로 보인다[18].

그리고 마지막으로 'open' 만의 구체명사 연어인 fire(불)가 결합하는 경우다.

(22) a. ...Davis **opened** **fire** and killed two armed motorcyclists....
b. ... 다른 한 사람은 **총**으로 **쏴** 죽였다.

위의 예문(22a)와 (22b)을 보면 다른 연어들과는 다르게 다른 연어와 다른 동사가 결합하여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예문(22a)에서 총이 발포되는 것을 'open fire'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총을 쏘는 것이 어떠한 행위의 개시인 점에 초점을 두어 '불'이 열려 새로운 행위가 시작된다는 은유적 표

17) 동아 새 국어사전에 따르면 '세우다'는 '(제도, 조직, 전통, 업체, 기관 따위를) 새로 이룩하거나 일으키다.'로 정의된다.

18) 또한 꼬꼬마 세종 말뭉치의 프로그램에서 사물실의 연어를 분석해본 결과 '세우다'가 0.89% 그리고 '열다' 가 0.33% 로 '세우다'와의 결합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으로 ‘open’과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사용된 것이다. 하지만 (22b)에서는 ‘총을 쏘다’[19]라고 비유법이 없이 표현하고 있다.

이번 절에서는 ‘open’ 만의 추상명사 연어를 살펴보았는데 한국어 동사 ‘열다’가 아닌 ‘시작하다’, ‘펴다’, ‘따다’와 같이 다른 동사들과 결합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밀봉된 것은 다시 닫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 동사 ‘따다’와 결합한 것처럼 한국어 동사 ‘열다’는 영어동사 ‘open’보다 ‘문’의 요소에 충족하는 정도가 높은 연어들과 결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팔을 벌리다’처럼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혹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다음 절에서는 ‘열다’만의 구체명사 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3.1.3 ‘열다’ 만의 구체명사 연어

‘open’의 구체명사 연어와 다르게 ‘열다’만의 연어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지만 특이하게 시적인 표현으로 명사연어 ‘몸’과 결합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23) 스스로 몸을 열어올 때까지 그는 …

위의 예문(23)의 ‘몸을 열다’는 몸을 허락한다는 의미를 가진 한국어만의 문학적인 표현으로 영어동사 ‘open’과의 결합이 어색한 명사 연어였다. 구체명사 연어 중 ‘open’과 결합하지 못하는 명사는 하나 밖에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open’의 의미영역은 ‘열다’보다 훨씬 넓어 많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추상명사 연어와 결합하는 경우는 어떠한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9) 동아 새 국어사전에 따르면 ‘쏘다’는 ‘활이나 총알 따위가 날아가게 하다.’로 정의된다.

3.2 추상명사연어

추상명사는 그 존재를 시간이나 공간 중 어느 관점에서도 정의할 수 없는 실체를 부호화하는 명사로(Givón 1993), 즉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명사를 의미한다.

이러한 'open'과 '열다'의 추상명사 연어와의 결합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다.

< 표 3> open 과 '열다'의 추상명사연어 결합 비율

	open 의 추상명사연어 (19개)	'열다'의 추상명사연어 (46개)
동시 결합 연어	9개 (47%)	45개 (98%)
단독 결합 연어	10개 (53%)	1개 (2%)

위와 같이 COCA에서 빈도순으로 검색된 'open'의 추상명사연어는 19개 중 '열다'와 공유하는 구체명사는 9개, 'open'만의 구체명사연어는 10개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열다'의 구체명사연어 46개 중 1개[20]를 제외한 45개 모두 'open'과의 결합이 가능하였다. 이 절에서는 'open'과 '열다'가 어떻게 실제 사용상의 차이가 있는지를 같은 추상명사연어를 공유하는 경우를 살펴보고, 공유하지 않는 추상명사연어는 어떠한 이유로 '열다'와의 결합이 성립되지 않았는지, 어떤 한국어의 다른 동사와 결합되는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추상명사 연어 또한 'open'과 '열다'의 공통 추상명사연어, open만의 추상명사 연어, 그리고 '열다'만의 추상명사 연어로 구분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0) 한국어 동사 '열다' 만의 구체명사 연어 중 유일하게 '말문'이 '열다'만의 구체명사 연어였다.

3.2.1 공유하는 추상명사 연어

‘open’의 추상명사 연어 19개 중 9개가 ‘열다’와도 결합하였고, ‘열다’의 추상명사 연어 46개 중 45개가 ‘open’과도 결합하였다. 추상명사 연어 중 ‘open’과 ‘열다’와 동시에 결합하는 연어를 의미를 기준으로 구분해 보았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열다’의 추상명사 연어 중 가장 결합비율이 높게 나왔던 이벤트 명사 연어인데 ‘open’의 연어로 발견된 명사연어 exhibition(전시회)과 ‘열다’의 추상명사연어 ‘총회’, ‘회담’, ‘기자회견’, ‘이사회’, ‘포럼’, ‘협의회’, ‘잔치’, ‘축제’, ‘음악회’, ‘콘서트’ 등이 있었다.

이러한 이벤트 명사연어 중 두 동사의 연어로 동시에 발견된 exhibition (전시회)의 예문을 살펴보자.

(24) a. King Olav V opened an exhibition ...
b. ...'색의 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 **전시회**를 **열었다**.

위의 예문(24a)와 (24b)의 전시회는 지정된 시각에 열렸고 어느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닫고 끝이 날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벤트 명사들은 사람들이 전시회를 보러 오고 사람들은 전시회의 그림들을 보고 그 느낌이나 이미지를 가지고 가게 된다. 이것은 추상적인 의미의 사물의 출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시회’나 ‘회의’와 같은 이벤트 명사연어들은 실제로 사람들의 출입이 있음을 생각하면 두 동사와의 결합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추상명사 연어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시회나 음악회를 하거나 축제를 할 때 정확한 일정을 가지고 있어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일을 시작하고 그 기간 안에 그 일을 끝을 내고 결과에 대한 변수가 적어 그 결과를 알 수 있어 이것은 문이 열리고 닫힘이 있는 것과 비슷

하다. 그리고 그 결과를 알 수 있어 사건 전체가 하나의 문을 열어 한 눈에 보이는 방과 같은 개념을 가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명사들은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 명사 연어들은 'open'과 '열다'와 동시에 결합한다.

두 번째는 공간추상명사 연어인데 '지평', '세계', '교실'과 같은 추상명사 연어가 발견되었다. 공간 추상명사연어에는 '지평'과 '세계'가 있다. '지평'은 지평선의 줄인 말이기도 한데 땅 끝과 하늘이 만나는 곳이 지평이다. 이러한 지평이 열린다는 것은 문과 같이 가로막혀있던 끝이 열림으로 해서 새로운 외부 공간이 열리는 것이다. 이러한 명사 연어들은 공간을 의미하는 추상명사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미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는 '기회'나 '가능성'과 유사한 은유의 표현이다. 그리고 '지평'이라는 명사 자체가 '사물의 전망이나 가능성'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느 정도 의미의 유사점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보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외의 추상명사 연어이다. possibility(가능성)와 opportunity(기회) 그리고 mind(마음)와 같은 연어들이 있었다. 이 중 'open'의 추상명사 연어인 '기회'의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자.

(25) a. The image of host and guests opens up opportunities and generates problems.

b.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다**.

'기회'와 '가능성'과 같은 추상명사 연어들은 문이 열려 내부공간과 전혀 다른 외부공간이 열리듯이 '가능성'과 '기회'가 문처럼 열림으로써 외부공간 즉, 기존의 것과 다른 새로운 어떤 것이 열린다는 공통점에 초점을 둔 은유적 표현으로 두 동사와 동시에 결합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추상명사연어 mind(마음) 또한 두 동사와 동시에 결합되었다. '마음을 여는 것'은 문을 열어 사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마음을 열어 내부공간인 자신을 드러내고 외부공간인 타인이나 다른 사물을 마음속에 받

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은유의 표현으로 두 동사와 자연스럽게 결합한다.

위와 같이 'open'과 '열다' 모두와 연어 관계를 이루는 추상명사들을 살펴본 결과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의미의 '문'들이 존재하여 내부와 외부의 공간을 연결하거나 혹은 개념적인 사물의 이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문'의 특성들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구체적 명사 연어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open'과 '열다'의 공통된 의미의 영역에 포함되는 부분이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두 동사와 결합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open'만의 연어를 살펴볼 것인데 어떠한 요인이 '열다'의 의미 영역에서 벗어나는지를 알아보겠다.

3.2.2 'open' 만의 추상명사 연어

본 절에서는 'open'만의 추상명사연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open'과 결합하는 추상명사연어 19개 중 10개의 추상명사연어가 '열다'와 결합하지 못하고 'open'과의 결합만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명사연어들은 business, dialogue, game, season, talks, account, investigation 등이 있다. 이러한 추상명사들은 왜 '열다'와의 결합이 어색하거나 불가능한 것인지 살펴보자. 먼저 한국어 동사 '시작하다'와 결합하는 경우인데 season, game, talk, dialogue와 같은 추상명사이다.

다음의 예(26)를 통해 이러한 명사들의 실제 사용을 살펴보자.

(26) a. ... Finland and Germany opened talks.

b. 막상 대화가 시작되자 [...] 마음은 긴장으로 변했다.[21)]

위의 예문(26a)에서는 '대화'를 어떠한 행위의 시작으로 보는 은유의 표현으로 'open'과 결합하였다. '대화'를 함으로써 핀란드와 독일의 양국의 관

21) []은 필자가 편의상 추가한 것임.

계가 더 나아지게 하는 '문'의 기능으로 이해한 것이다. 하지만 예문(26b)에서의 대화는 '시작'되는 것이다. 대화를 시작하고 화자의 마음은 자신이 알지 못했던 방향 즉 긴장이 되는 상태가 된 것이다. 그래서 화자가 알 수 있는 시작점에 좀 더 초점을 두어 이해한 것이다.

이 추상명사 연어들을 의미적으로 분석해보면 game과 season은 위에서 설명했던 추상명사 연어 exhibition과 어떠한 특정한 시간에 그 활동이 끝나야하는 시간의 한정성을 가진 점은 유사하다. 그러나 '문'의 기능적 요소인 사물의 출입이 전혀 없고 '기회'나 '가능성'에서처럼 통로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게임을 하면 시간은 정해놓고 시작하고 끝이 나기는 하지만 그 누구도 그 게임의 결과는 알 수 없는 미정의 상태다. '문'에 비유하자면 열리기는 하나 닫히지는 않는 것이다. 그래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시작점에 초점을 두는 동사 '시작하다'와 결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talk와 dialogue와 같은 추상명사들은 일반적으로 대화라는 것이 시간의 한정성이 있어서 어떠한 특정한 기간 안에 시작하고 끝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대화를 끝내는 것 또한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배제하고 확실한 시작점에 초점을 두어 '시작하다'와 결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의 추상명사연어들과 유사하게 정해진 일정이 없는 명사 연어 'business'와 'investigation'이 있다. 아래의 예(27)을 통해 'open'과 '벌이다'가 각각 어떻게 실제문장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27) a. Now my goal is to open a business.

b. ... 이익으로 또 다른 **사업**을 **벌인다.**

예문(27a)에서 보면 '사업'을 여는 것은 새로운 어떤 것은 문을 여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위의 시작이라는 공통점을 공유한 은유의 표현으로 'open'과 결합하고 있다. 하지만 예문(27b)에서는 자신이 가진 이익을 투자해서 그에

따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연다고 생각하여 ‘벌이다’와 결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이라는 것은 잘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있는 명사이다. 계속 사업이 번창해 나간다면 문을 닫을 일이 영영 없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명사연어들은 동사 ‘벌이다’[22]와 결합한다. ‘사업’은 그냥 대화를 시작하듯이 시작하지는 않는다.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에 대해여 많은 사전조사를 거치고 계획을 세워 시작한다. 그래서 추상명사 연어 ‘business’는 ‘열다’ 대신에 계획하여 일을 시작한다는 뜻을 가진 동사 ‘벌이다’와 결합하는 것이다.[23]

이와 같이 ‘open’은 ‘열다’와 다르게 불확실한 결과를 가진 추상명사들과도 결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어에서는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에 초점을 두어 그에 적합한 동사를 사용하였는데 ‘open’과 다른 부분에 초점을 두어 각기 연어들과 결합하였다. 이러한 것은 언어의 문제 뿐 아니라 이러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또한 반영하는 것이라 보인다. 다음 절에서는 ‘열다’만의 추상명사 연어를 살펴보겠다.

3.2.3 ‘열다’ 만의 추상명사 연어

추상명사 연어에서 또한 구체명사연어와 마찬가지로 ‘열다’만의 추상명사 연어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는데 한 가지 발견된 ‘열다’만의 추상명사 연어는 ‘말문’이었다. 추상적인 명사 ‘말’이 ‘문’이라는 구체명사와 결합한 ‘말문’이라는 명사연어는 그 자체가 은유적 표현인데 문을 여는 것이 행위의 시작을 나타내는 것처럼 말의 문을 열어 말을 시작한다는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어만의 특유의 표현으로 영어동사 ‘open’과는 결합하지 않았다.

---

22)동아 새 국어사전에 의하면 ‘벌이다’는 ‘(영업을 목적으로) 시설을 차리다’라고 정의된다.

23) business(사업)은 ‘벌이다’ 이외에도 ‘뛰어들다’, ‘펼치다’ 와 같은 동사와 결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꼬꼬마 세종 말뭉치의 프로그램에서 사물실의 연어를 분석해본 결과 ‘벌이다’가 5.62% 그리고 ‘뛰어들다’ 가 1.50% 로 ‘벌이다’와의 결합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추상명사연어를 살펴본 결과 구체명사연어와 마찬가지로 'open'이 구체적인 사물과 결합할 때뿐만 아니라 은유와 환유의 표현을 적용할 때도 좀 더 확장된 의미영역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 절에서는 시간적 명사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3.3 시간적 명사연어

시간적 명사는 시간 속에서만 존재하는 개체를 부호화한다(Givon. 1993). 즉, 시간의 의미를 부호화하는 명사를 의미한다.[24] 'open'의 시간적 명사연어는 14개가 발견되었는데 아래의 예 모두 시간부사절로 발견되었을 뿐 목적어 명사 연어로는 결합하지 않았다.[25]

그에 반해 '열다'의 시간적 명사연어는 6개가 발견되었는데 '아침', '새벽', '내일', '미래', '세기', 그리고 '시대'와 같은 명사들이었다. 'open'은 시간적 명사와의 결합은 드물게 발견되었다. 이러한 '열다'의 시간적 명사연어는 'open'과 결합되는 경우와 '열다'와만 결합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첫째로 두 동사와 동시에 결합하는 경우인데 '열다'의 시간명사연어 중 morning(아침), future(미래), era(시대)가 'open'과 동시에 결합하였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28) a. We **open** the **morning** with prayer.

b. 그녀와 나는 [....] 화요일의 해맑은 **아침**을 활짝 **연다**.[26]

---

24) Sunday, year, morning 와 같은 명사들을 전형적인 예로 들고 있다.

25) 발견된 'open'의 시간명사연어는 'The golf course **opened** *three years ago*.'와 같은 시간부사절이 대부분이었다.

26) []는 필자가 편의상 추가한 것임.

‘아침’이라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는 시기이다.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문을 열어 새로운 어떤 것을 여는 것의 공통점에 기반을 둔 은유적인 표현으로 ‘open’과 ‘열다’와 동시에 결합하고 있다. 이는 ‘미래’와 ‘시대’ 또한 유사하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29) a. ...space telescope has **opened** new **era** in planetary science.
b. 신세대란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젊은이를 말한다.

위의 예문(29a)에서 시대를 연다는 것은 위의 예문(28)의 ‘아침’처럼 시간적인 기준이 있는 ‘시대’를 여는 것이 아니라 우주망원경을 사용함으로써 이전과는 다르게 새로운 행성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게 된 임의의 시기가 시작됨을 의미한다. 이 또한 우주망원경이 없었던 기존의 시기가 내부공간이었다면 우주망원경을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시기가 ‘문’이 열려 새로운 외부공간이 열리는 것의 공통점에 기반을 둔 은유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간적 명사연어 또한 구체명사연어나 추상명사연어와 유사하게 많은 표현들이 비유법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두 번째로 ‘열다’와의 결합만이 가능한 시간적 명사연어는 ‘하루’, ‘새벽’, ‘내일’ 등이 발견되었다. 아래 예문을 살펴보자.

(30) **하루**를 **여는** 첫 방송인 6시 뉴스는 이렇게 시작된다.

이러한 시간적명사연어는 ‘아침’과 유사하게 ‘하루’를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시작점으로 본 은유의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결합하였지만 ‘open’은 시간적 표현에 있어 은유의 확장에 제한이 있으므로 ‘하루’와는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시대’와 같은 시간명사연어는 다른 명사연어들

과는 마찬가지로 은유의 표현이 쓰여 두 동사와 동시에 결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명사연어는 구체명사나 추상명사연어와는 다르게 ‘open’이 아닌 ‘열다’와의 결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에 관련된 연어와이 결합에서는 ‘open’의 의미적 확장이 제한되어 결합이 가능하지 않은 연어들이 발견되었고 ‘열다’가 더 넓은 의미영역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Ⅳ. 결론

지금까지 동일한 의미로만 생각되어진 영어 동사 ‘open’과 한국어 동사 ‘열다’가 각각 어떠한 의미영역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COCA와 꼬꼬마 세종 말뭉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open’의 목적어 명사 연어와 ‘열다’의 목적어 명사연어를 빈도순으로 조사했다. 그리고 그 명사연어들을 구체명사연어, 추상명사연어, 그리고 시간명사연어로 구분하여 그 명사연어들과의 결합관계를 기준으로 분류한 명사연어들을 의미적으로 분석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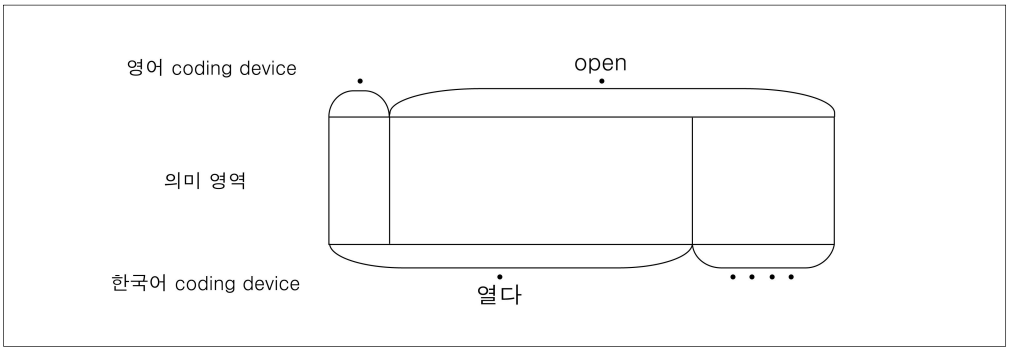
첫째, 본 연구에서 발견된 명사연어들을 분석해본 결과 명사연어가 ‘open’ 혹은 ‘열다’의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벽과 같은 경계가 있어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이 있으며 개폐가 가능한 문이 있어 사람이나 사물의 출입이 가능하게 하는 요소들에 부합되는 ‘문’이거나 혹은 이러한 요소들을 대부분을 충족시키는 명사연어의 경우 대부분이 ‘open’과 ‘열다’와 동시에 결합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floodgate(수문)이나 lid(뚜껑)와 같이 ‘문’의 종류이거나 ‘문’의 기능을 하는 것은 두 동사 모두와 결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에 부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open mouth(입을 열다)나 open locker(자물쇠를 열다)와 같이 은유나 환유와 같은 비유의 표현을 사용하여 결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의미의 확장은 추상명사연어와 시간명사연어까지 포함하였다. 추상명사연어인 mind(마음)나 opportunity(기회)와 같은 명사연어들은 추상적인 의미의 내부공간이나 새로운 곳으로 통하는 통로로 여겨 은유의 표현방법을 채택하여 두 동사 모두와 결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유일하게 한국어 동사 ‘열다’의 명사연어가 많이 발견되었던 시간명사 연어들은 비유법을 통해 두 동사와 결합하고 있었다. ‘아침’과 같은 시간명사연어 또한 은유의 표현으로 두 동사와 자연스럽게 결합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문'의 전형적인 요소들에 부합되지 않거나 비유법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많은 명사연어들은 'open'만의 연어가 되었고 한국어의 다른 동사들과 결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open'과 '열다'의 명사연어들이 영어 동사 'open'과는 결합한데 반해 한국어 동사 '열다'는 그렇지 못하였다. 구체명사의 경우 bottle(병)이나 arm(팔)과 같이 '문'의 전형에 부합하지 못하는 명사연어들은 '열다'와 결합하지 못하고 '따다'나 '펴다'와 같은 다른 동사로 대체되어 결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에 반에 '열다' 만의 결합 구체명사연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것은 '열다'의 의미영역이 'open'보다 좁은 의미영역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는 추상명사연어와 'open'과 '열다'와의 결합을 비교해보아도 알 수 있었다. 추상명사 연어인 talk(대화)는 'open'하고만 결합했는데, '열다'보다는 끝을 알 수 없는 결과를 배제하고 확실한 시작점에 초점을 둔 동사 '시작하다'와 결합한 것이 그 예이다.

셋째, 전형적인 명사연어인 '문'의 요소들에 부합하는 것 이외에도 문화의 차이로 기인한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영어동사 'open'과 한국어동사 '열다'의 명사연어들과의 결합의 기준이 되기도 하였다.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이러한 사고방식은 은유나 환유와 같은 표현의 확장에도 반영이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래서 '책'과 같은 명사연어와 결합할 때 영어에서는 은유의 표현이 사용되어 'open'과 결합되지만 한국어에서는 접혀있던 사물을 벌린다는 의미를 가진 '펴다'와 결합이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open'과 '열다'는 < 그림 1 >과 같이 의미영역을 도식화로 도출 할 수 있다.



< 그림 1 > open 과 '열다'의 의미영역 비교

본 연구를 통해 같은 의미영역이라고 여겨졌던 영어 동사 'open'과 그에 대응하는 한국어 동사 '열다'를 각 어휘의 목적어 명사 연어와의 결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두 동사의 의미 영역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었다. 기존의 영어의 유사한 의미의 동사들 사이의 의미와 연어를 분석한 연구에 그치지 않고 본 연구에서는 다른 언어의 유사 어휘의 의미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각 동사의 연어를 통해 밝혀낼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각 어휘의 목적어 명사 연어 결합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처럼 각 언어의 어휘 간의 비교에 그치지 않고 다른 언어 사이의 의미 차이를 실제 사용되는 코퍼스를 기반으로 한 연구를 통해 다른 언어의 어휘 간의 의미영역을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는 다른 언어의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한정된 표현만 구사하는 외국어 학습자들에게 꼭 필요한 실용적인 자료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김기수. 1997. 인지문법에서의 은유와 환유의 비교.『영어영문학연구』 39(2), 85-104.

김낙복. 2005. 영어 연어의 고찰과 교수 방법에 관한 연구.『외국어교육』 12(2), 141-165.

_____. 2007. 연어 중심 어휘지도가 고등학생의 영어 독해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영어어문교육』13(3), 157-176.

김미순. 2008. 고등학교 영어 수업에서의 연어 활용 방안. 『현대영어영문학』52(2), 21-42.

김영생. 2004. 『영어 유의어 지도를 위한 코퍼스(corpus)분석』.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김영은. 2008. 한국어 영어 학습자의 연어사용 오류분석.『영어 교육연구』37, 132-156.

『동아 새 국어사전』, 제4판. 2004. 서울: 두산동아.

박미실. 2009. 『코퍼스를 활용한 중등학생의 영어 형용사와 동사 유의어 연어 능력에 관한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심유희. 1995. 영어학습에서의 은유와 환유. 『현대영어영문학』49(1), 113-127.

심지영. 2008. SEE와 WATCH의 의미와 연어비교. 『새한영어영문학』 50(4) 221-210.

_____. 2009. 『코퍼스를 기반으로 한 see와 watch의 의미와 연어비교』. 박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_____. 2010. finish와 end의 의미와 연어 비교연구. 『현대문법학회』 62, 227-252.

『에센스 영한사전』제11판. 서울: 민중서림.

이기동. 2002. 『인지문법에서 본 영어동사 의미와 교체현상』. 서울: 경진문화사.

_____. 2006. 영어동사사전. 서울: 한국문화사.

이수련. 2006. 은유와 환유의 인지언어학적 관련성 연구. 『새얼 어문학회』 18, 163-183.

윤희수. 2005. 몇몇 영어 구문의 문법성에 대한 환유의 설명력. 『언어과학연구』 35, 89-106.

정연창·서려임·김은일. 2007. 한국 대학생의 영어 '동사 + 명사' 연어 능력에 관한 코퍼스 기반연구. 『현대문법연구』 49, 199-232.

정연창·염지민·장세은. 2006. 코퍼스에 기반한 한국중학생의 영어유의어 연어 능력에 관한 연구. 『새한영어영문학』 48, 247-272.

조의연. 2005. 영어 말뭉치에 나타난 연어 관계를 통해 본 동사의 의미정보: 동사 'accommodate' 와 'detect'를 중심으로. 『담화인지』 12(1),

현태덕. 2007. 연어 학습이 영어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현대 영어교육』 8(1), 191-209.

Benson, M., Benson, E. & Ilson, R. 1997a. *The BBI Dictionary of English*. Amsterdam: John Benjamins.

Benson, M., Benson, E. & Ilson, R. 1997b. *The BBI Dictionary of English Word Combinations.* Philadelphia, MA: John Benjamins.

Carter, R. 1987. *Vocabulary*. London: Allen and Unwin.

Croft, W. 1993. The Role of Domains in the Interpretation of Metaphors and Metonymies. Cognitive Linguistics 4, 335-370.

Firth, J. 1957. A Synopsis of Linguistic Theory 1930-1955. In *Studies in Linguistic Analysis,* Special Volume. Oxford Blackwell. 1-32.

Givón, T. 1993. *English Grammar: A Function-based Introduc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김은일, 박기성, 채영희(역). 2002. 『기능영문법』. 서울: 박이정)

Hill, J. 2000. Collocational Competence. *English Teaching Professional* 11, 3-6.

Lakoff, G. 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akoff, G. & M. Johnson.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okoff, G. 1993. The Contemporary Theory of Metaphor. In A. Ortony (ed.) *Metaphor and Thou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ewis. M. 1993. *The Lexical Approach: The State of ELT and the Way Forward*. England: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Lewis. M. 1997. *Implementing the Lexical Approach: Putting Theory into Practice*. London: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Lewis. M. 2000. *Teaching Collocation: Further developments in the Lexical Approach*. London: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Pawley, A. and F. H. Syder. 1983. Two Puzzles for Linguistic Theory: Nativelike Selection and Nativelike Fluency. In J. Richards and R. Schmidt (eds.) *Language and Communication*, 191-226. London: Longman.

Radden, G. 2005. The Ubiquity of Metonymy, (ms.) Hamburg: Universität Hamburg.